

# 농진청, 농업혁신 코피아 씨감자 생산시설 준공

### 한국-파키스탄, 무병 씨감자 생산시설 준공식·국제 학술 토론회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현)은 8월 7일 파키스탄 국립농업연구원에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HA) 파키스탄 센터 주관으로 무병 씨감자 생산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생산시설을 공개했다. 농촌진흥청은 파키스탄 정부와의 협력으로 씨감자 생산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향후 씨감자 생산을 통해 파키스탄의 농업 생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평가했다.

파키스탄에서 감자는 쌀, 밀, 사탕수수에 이어 네 번째로 생산량이 많은 작물로, 연간 생산량이 약 460만 톤에 달한다.

하지만 주로 수입과 자가재종에 의존해 씨감자를 생산하다 보니 질병 감염 우려가 크고 농가 생산성 및 소득이 낮았다.

따라서 이번 무병 씨감자 생산시설 준공을 기점으로 파키스탄의 씨감자 자급률이 올라가 감자 산업이 크게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준공식 이후에는 두 나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파키스탄 씨감자 생산기술 국제 학술 토론회(심포

지엄)를 열고 씨감자 생산기술과 보급 및 인증 체계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박기준 주파키스탄 대한국 대사, 라나 탄비르 후세인 파키스탄 식량안보부 장관, 굴람 알리 파키스탄 농업연구청장, 곽도연 국립식량과학원장 등이 참석해 한국과 파키스탄의 지속적인 협력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곽도연 원장은 "이번 준공식과 학술 토론회는 한국과 파키스탄 간 농업기술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파키스탄과의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파키스탄의 농업 생산성 향상과 식량 안보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7일 진안군 진안읍 소재 다문화가정에서 'JB 다정다감 행복한집 제8호' 오픈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JB 다정다감 행복한집' 오픈

### 전북은행, 진안읍 다문화가정에 도배 등 지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7일 진안군 진안읍 소재 다문화가정에서 'JB 다정다감 행복한집 제8호' 오픈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진안군 김병하 부군수, 진안군 가족센터 박주철 센터장, 전북은행 전상의 부행장 공명숙 진안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진안군 가족센터 추천으로 찾아간 다문화 가정은 일용직 근로자인 아버지가 두 자녀를 어렵게 양육하고 있었으며, 어머니의 부재로 집안 환경 정리에 어려움이 크고 각종 집이 가득한 아동들의 방에는 책상과 가구 등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은행에서는 오래된 벽지를 제거하고 집안 전체 도배를 새롭게 해 깔끔한 환경을 조성했으며, 두 자녀의 방에는 책상, 의자, 책장, 침대, 옷장, 전등, 블라인드 등을 지원해 꿈을 잃지 않고 학업에 열중하도록 도왔다.

전상의 부행장은 "아동들이 어릴 때부터 다방면으로 지원해 온 진안군과 가족센터의 노력으로 가족들이 다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행복한 집을 완성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이웃들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만호기자

###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보리 호밀 정부보급증 신청접수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병준)에서는 2024년도 맥류 보급증에 대해 27일까지 전북지역 시·군 농업기술센터(농업인 상담소 포함)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보리·호밀 신청 가능 물량은 4품종 331.5톤으로 보리는 전량 소독종자로, 호밀은 전량 미소독 종자로 신청 받는다. 공급가격은 결보리 3만 3,360(1포/20kg), 쌀보리 3만 7,760(1포/20kg), 호밀 4만 8,580(1포/20kg)이다. 품종별 공급 물량은 결보리(큰알1호)는 46톤이고 쌀보리는 흰찰쌀 77.5톤, 누리찰쌀 170톤이다. 또한 호밀(곡우)은 38톤을 보급한다.

아울러, 신청한 종자는 수송시 이후 신청내역(품종, 수량 등)에 대하여 변경 및 취소가 불가능하며, 변경 및 취소로 발생하는 손실(종자 대금, 운송비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 농가에 있어 이를 유의하여 신청해야 한다.

또한, 종자구입 확인서는 신청한 농가명으론 발급되며 농업인상담소 담당 공무원 이름 등으로 대리 신청 시 발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농업인 본인 이름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 종자는 정선 및 출고 전 발아율 검사가 완료된 시점부터 10월 10일까지 공급을 희망한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보급증 신청·공급 관련 문의나 품종별 특성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은 국립종자원 국립종자원 전북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 전주상의, 경영애로 해소 위한 도내 유관단체 협약 체결

### 회원기업 노사관계 개선·수출입 신고에 대한 자문역할 수행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7일 전주상의 중회의실에서 전북공인노무사회(회장 신용순), 한국관세사회 전북지부(지부장 백창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주상의 회원기업에서 어려워하는 노동·노사관계에 대한 기업의 이해증진 및 FTA 등 해외 수

출시 필요한 무역서류에 대한 자문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한 환경에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체결되었다.

협약 주요내용은 전주상공회의소 회원기업 대상 노무관련 법령에 대한 정보자문 기업에서 수출입 신고에 대한 자문 및 FTA 활용 지원 그리고 기관간 교육 공동개최 및 행사 시 상호협력 등이 주된 내용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김정태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관간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한편 지역 상공인들의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LX공간정보연구원, '지적과 국토정보' 하반기 원고 모집

LX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원장 곽희도)이 지적과 공간정보분야 발전을 견인할 논문 모집을 실시한다.

LX공간정보연구원은 7일부터 KCI등재학술지 '지적과 국토정보' 제389호 제54권 2호에 게재할 2024년 하반기 논문을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LX공간정보연구원이 발행하고 있는 학술지 '지적과 국토정보'는 공간정보와 지적분야의 학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창간했다. 매년 반기별로 발간되고 있는 '지적과 국토정보'는 2014년에 한국연구재단(KCI) 등재학술지로 선정되며 지적·공간정보

전문 학술지로서 권위를 인정받았다. 이번엔 모집하는 분야는 지적, 공간정보, 국토계획, 부동산 AI·빅데이터, 모빌리티 인프라 등 국토공간정보관련 전반을 주제로한 연구논문이다. 논문 분량은 A4지 15매 내외이며 제출 기한은 오는 10월 11일까지이다. 국민



누구나 투고 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연구원 홈페이지나 학술지 투고용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특히 '지적과 국토정보'는 연구활동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유로운 학술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논문 투고료, 심사료, 게재료는 일체 받지 않는다. 또한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연구자에게는 공간정보연구원장 표창장과 소정의 학술장려금이 수여된다.

곽희도 원장은 "지적과 공간정보분야 성장을 이끌 연구자들의 많은 지원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개공,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갱신인증 획득

### 재난안전, 안전·보건 분야 등 2개 인증 획득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최근 국제표준 규격인 ISO 22301(비즈니스연속성 경영 시스템)과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심사에서 KMR(한국경영인인증원)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심사를 통해 ISO 22301과 ISO 45001의 중복



요구사항을 하나로 표준화하여 시스템 운영 효율성을 높여 통합 인증을 받게 되었다.

공사는 지난 2021년 최초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획득한 데 이어 2023년 ISO 22301(비즈니스연속성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여 지속적으로 재난안전 및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고도화해 왔다. ISO 국제표준 인증 획득은 ESG(환

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성을 다루는 데 중요한 도구이다.

공사 안전관리팀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안전보건 경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차별화된 ESG 경영활동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